

‘2023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

자료제공_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매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 수준**에 머물렀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이사장 김영석)는 <2023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상반기 결산>과 최근 5년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총 거래액은 **약811억원**으로 2019년 수준 이하로 급락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 5년을 비교할 경우, 2022년 약1446억원, 2021년 약1438억원, 2020년 약490억원, 2019년 약826억원, 2018년 약1030억원 등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낙찰률 52%**(2022년 65.3% · 2021년 65.4% · 2020년 64.5% · 2019년 65.8% · 2018년 68.8%) 역시 지난 5년간 처음으로 50% 초반을 기록해 가장 낮았다. **총 출품작은 915점이 줄어든 14,851점**(2022년 15,766점 · 2021년 16,822점 · 2020년 14,224점 · 2019년 12,458점 · 2018년 12,820점)이었지만, **낙찰작품은 무려 2,572점이 줄어든 7,724점**(2022년 10,296점 · 2021년 10,999점 · 2020년 9,173점 · 2019년 낙찰 8,199점 · 2018년 낙찰 8,815점)에 그쳤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김영석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경매시장 결산은 현재 한국 미술시장의 경기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실감하는 결과다. 특히 절대적인 우위로 미술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국내외 블루칩 작가인 이우환과 쿠사마 야요이 마저도 지난해 대비 크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며, “조선시대 백자가 최고가 1위를 차지한 의외의 결과처럼, 일부 잘 팔리는 작가에게만 의존하는 미술시장 풍토를 극복하고 좀 더 다양한 작가군이 폭넓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술시장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낙찰총액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이우환 작가가 약 72억원, 낙찰률은 54%로 **4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블루칩 작가인 이우환도 지난해 대비 낙찰총액은 30% 수준, 낙찰률도 처음 50% 대인 것으로 볼 때, 현재 국내 미술시장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2년 이우환 낙찰총액 200억원, 낙찰률 75.5% / 2021년 이우환 낙찰총액 187억원, 낙찰률 86% / 2020년 이우환 약 61억원, 78.26% / 2019년 김환기 약 145억원, 70.59% / 2018년 김환기 약 214억원, 87.5%)

경매사별로 살펴보면 **케이옥션이 약301억원**(지난해 526억원)로 약286억원인 서울옥션을 근소한 차이로 추월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낙찰총액 1위 경매사의 평균 낙찰률이 42.3%(2위 서울옥션 58.9% · 3위 마이아트옥션 72.3%)라는 점은 그만큼 고가의 낙찰 작품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최고 낙찰가 1위는 지난 5월 마이아트옥션에서 낙찰된 조선시대 백자청화오조룡문호(높이56cm) 70억원이 차지했다. 이는 그동안 낙찰가 1위를 고수해온 해외작가의 작품 대신 한국의 전통 고미술품이 탈환했다는 점이 무척 고무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대미술만 따진다면 지난해 이어 **쿠사마 야요이(25억원)**가 선두였고, **5년 연속 해외작가가 1위**를 고수한 셈이다.

(2022년 최고 낙찰가 1위 쿠사마 야요이 44억원 / 2021년 마르크 샤갈 42억원 / 2020년 쿠사마 야요이 14억5천만원 / 2019년 르네 마그리트 72억4천만원 / 2018년 김환기 약 85억3천만원)

최고가 상위 20순위 중엔 **‘이우환 5점, 박서보 3점, 김환기/유영국 2점’**등으로 이우환은 지난해 다소 줄고, 박서보는 늘어났다.

작가별 낙찰총액 상위 5순위는 1위 이우환(약72.3억원 · 54%), 2위 김환기(약41.3억원 · 62.1%), 3위 유영국(약37.7억원 · 91.7%), 4위 박서보(약37.3억원 · 58.8%), 5위 쿠사마 야요이(약34.2억원 · 57.8%)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 1위를 고수했지만 50% 대의 저조한 낙찰률에 지난해의 36% 수준의 낙찰총액을 보인 이우환과 낙찰률 약92%로 급부상한 유영국이 크게 대조되었고, 11위를 차지한 아야코 록카쿠(지난해 5위)를 제외하곤 젊은 작가군이 사라져 주목됐다.

(2022년 1위 이우환 약200억원 · 75.6%, 2위 쿠사마 야요이 약138억원 · 82.2%, 3위 박서보 약85.5억원 · 86.7%, 4위 김환기 약 49.6억원 · 58.5%, 5위 아야코 록카쿠 약46.4억원 · 65%)

참고로 지난해 20순위 중 생존작가는 17명으로 85%를 차지했고, 아야코 록카쿠(일본) · 사라 휴즈(미국) · 김선우(한국) 등 40세 전후 젊은 작가가 대거 포함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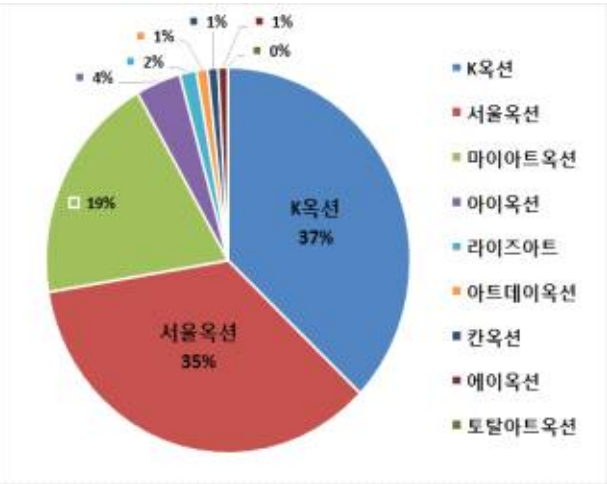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9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마이아트옥션, 아트데이옥션, 아이옥션, 라이즈아트, 에이옥션, 칸옥션, 토탈아트옥션)에서 올해 1월~6월 말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의 분석결과이다. 다만 서울옥션 제로베이스는 제외된 것이고, 이브닝 세일은 포함되었다.

2023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부문별 결산 도표 및 그래프

1. 경매사별 총 낙찰총액 및 낙찰률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K 옥션	30,088,880,000	5,156	2,180	42.28
서울옥션	28,611,300,000	3,021	1,780	58.92
마이아트옥션	15,691,430,000	637	454	71.27
아이옥션	3,251,310,000	1,991	1,347	67.65
라이즈아트	1,209,720,000	929	500	53.82
아트데이옥션	801,730,000	1,199	415	34.61
칸옥션	743,850,000	285	173	60.7
에이옥션	707,410,000	1,317	875	66.44
토탈아트옥션	0	316	0	0
총합계	81,105,630,000	14,851	7,724	52.01

2. 경매사별 비중도



3. 2023 상반기 국내 경매 낙찰가 20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규격(cm)	재료	제작년도	낙찰가	옥션사	날짜
1		백자청화오조통문호	19.5×20×56(h)	도자		7,000,000,000	마이아트옥션	2023.05.25
2	쿠사마 야요이	Infinity-Nets Green(TTZO)	194×130.3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5	2,500,000,000	서울옥션	2023.03.28
3	김환기	복서풍 30-VIII-65	177.5×127	캔버스에 유채	1965	1,500,000,000	K 옥션	2023.01.18
4	이우환	조음	145.5×112.1(4ea)	캔버스에 안료	2000	1,300,000,000	K 옥션	2023.03.29
5	유영국	Work	162×133	캔버스에 유채	1964	1,070,000,000	서울옥션	2023.03.28
6		백자사각병	4×10.7×25.5(h)	도자		1,040,000,000	마이아트옥션	2023.03.09
7	유영국	Work	130.3×193.9	캔버스에 유채	1989	1,000,000,000	K 옥션	2023.06.28
8	이우환	Dialogue	226.9×181.8	캔버스에 안료, 유채	2008-2014	900,000,000	서울옥션	2023.06.27
9	김환기	무제	61.4×91.8	캔버스에 유채, 혼합재료	1960년대 중반	800,000,000	서울옥션	2023.04.25
10	이우환	선으로부터 No.77072	72.7×90.9	캔버스에 안료	1977	700,000,000	K 옥션	2023.01.18
11	천경자	정(靜)	162.5×85	종이에 채색	1955	600,000,000	서울옥션	2023.02.28
12	이우환	From Point	98.8×78.2	캔버스에 유채, 안료	1980	600,000,000	서울옥션	2023.05.30
13	박서보	묘법 No.53~78	80×116	마포에 연필, 유채	1978	520,000,000	서울옥션	2023.02.28

14	박서보	묘법 No.150317	200×130	캔버스 위 한지에 혼합재료	2015	490,000,000	서울옥션	2023.02.28
15	박수근	노상	25×20	캔버스에 유채	1950년대	460,000,000	K옥션	2023.02.22
16	박서보	묘법 No.980730	260×200	캔버스 위 한지에 혼합재료	1998	450,000,000	K옥션	2023.02.22
17	이인상	유천점봉로도	26×43	종이에 수묵	1747	450,000,000	마이아트옥션	2023.05.25
18	이우환	Dialogue	72.7×90.9	캔버스에 안료	2008	440,000,000	K옥션	2023.05.31
19	한중유	윤동승 초상	140.5×69.5	비단에 수묵채색, 금	1773	420,000,000	마이아트옥션	2023.05.25
20	김창열	물방울 CSH70	90.9×72.7	린넨에 유채	1979	420,000,000	K옥션	2023.05.31

4. 작가별 낙찰총액 20순위 작가 (생존작가 12명, 60%. 해외작가 2명, 40세 전후 아야코 록카쿠 1명)

순위	작가명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1	이우환 (1936~)	7,228,050,000	124	67	54.03
2	김환기 (1913~1974)	4,127,920,000	58	36	62.07
3	유영국 (1916~2002)	3,767,300,000	24	22	91.67
4	박서보 (1931~)	3,733,400,000	97	57	58.76
5	쿠사마 야요이 (1929~)	3,420,920,000	45	26	57.78
6	이배 (1956~)	2,248,100,000	67	44	65.67
7	김창열 (1929~2021)	1,898,500,000	87	42	48.28
8	박수근 (1914~1965)	1,727,720,000	14	9	64.29
9	윤형근 (1928~2007)	1,623,000,000	20	14	70.00
10	장욱진 (1917~1990)	1,332,940,000	31	24	77.42
11	아야코 록카쿠 (1982~)	1,135,750,000	39	26	66.67
12	이건용 (1942~)	1,039,700,000	68	31	45.59
13	정상화 (1932~)	818,000,000	28	12	42.86
14	하종현 (1935~)	795,000,000	9	7	77.78
15	천경자 (1924~2015)	768,280,000	42	26	61.90
16	도상봉 (1902~1977)	755,000,000	9	5	55.56
17	이강소 (1943~)	623,300,000	15	11	73.33
18	김중학 (1937~)	594,070,000	48	26	54.17
19	정영주 (1970~)	542,000,000	11	11	100.00
20	이왈중 (1945~)	494,570,000	94	43	45.74

2. 경매사별 비중도

